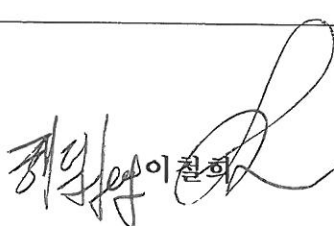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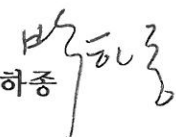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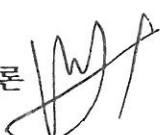



회의의사록

회의명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일시	2013. 5. 13(화) 7:30pm
회의장소	복음관 회의실	불참자	
회의안건	사학용자 기재허가 신청서 심의		
회의내용	<p>찬송가 411장을 부르고 박하중 위원의 기도 후 정해덕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p> <p>정해덕위원장이 일립관 리모델링을 통해 기숙사, 교수연구실, 실습실, 강의실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950,000,000원을 용자신청할 예정이며 차입 조건은 5년 거치 5년 교비상환이라고 말하다. 또한 교비상환은 기금인출을 통한 상환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과부 승인되면 이를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다. 이에 위원들이 아래와 같이 논의하다</p> <p>이철희 - 공사면적은 어느정도 되는가? 정해덕 - 약 2,700여평 된다. 김성경 - 자료를 보면 자금조달계획에 기부금이 2013년도에는 없는 것인가? 김중완 - 기부금은 학교 교육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박하중 -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처분을 검토하여 용자 외에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는가? 김중완 - 법인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자산 처분이 쉽지 않은 일이다. 정해덕 - 양평 토지 매각, 오피스빌 매각 등 크지는 않지만 추진하고는 있다. 이철희 - 수익재산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나? 정해덕 - 많지 않은 편이다. 포천 등 임야가 악산이라 어렵다. 선부른 투자는 위험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검토하고 있다. 박하중 - 기증 받은 토지 기사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할 자금도 확보해야 한다. 성서대학돕기 운동과 함께 고려해보기를 권한다. 정해덕 -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현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철희 - 이렇게 용자를 받으면 학교 재정이 어려워 지지는 않나? 김중완 - 지난 해 결산을 보더라도 아직은 이 정도의 용자는 소화할 수 있다. 김성경 - 신입교수6명이 충원되어 인건비가 상승되었으나 전임교수의 강의를 늘리고 외래강사비를 줄이는 등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박하중 - 최근 큰 지출이 많은 걸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p>		

회의의사록

회의명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일시	2013. 5. 13(화) 7:30pm
회의장소	복음관 회의실	불참자	
회의안건	사학유자 기채허가 신청서 심의		
	<p>이철휘 - 적절한 차입은 재정지출을 탄탄하게 할 수도 있다.</p> <p>정해덕위원장이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는지 질문하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 제청을 구하다.</p> <p>이에 박하중 위원이 동의하고 신창현 위원이 제청하여 사학진흥재단에 9억5천만원 융자금 신청하는 것이 가결되다.</p> <p>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치다.</p>		
참석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정해덕  이철휘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박하중  신창현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김성경  김종완  박아론  박아론 </p> </div> </div>		